



NH농협생명, 자매결연마을서 영농철 일손 돕기

NH농협생명은 지난 10일 충남 아산시 송악면 외암민속마을로 농촌일손돕기에 나섰다 13일 밝혔다. 이번 일손 돕기는 전용범 경영기획부문 부사장과 임직원 30여 명이 참석했다. 전용범 NH농협생명 경영기획부문 부사장이 농가 일을 돕고 있다. /NH농협생명



롯데백 문화센터, 국가대표 식품명인 뜬다

롯데백화점은 다양한 테마의 소규모 클래스 중심으로 랜선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평소 쿠킹 클래스나 강좌를 많이 진행하지 않는 요리 명인들의 특별한 클래스를 기획, 랜선으로 그 비법을 전수하고 레시피에 활용된 상품들도 다양하게 선보인다. 롯데백화점 문화센터 강사가 랜선으로 수강생들을 만나고 있다. /롯데백화점



교보증권 '줄넘기 챌린지' 기부금 기아대책 전달

교보증권은 '가족과 함께하는 줄넘기 10만 챌린지'로 적립된 기부금을 국제구호단체인 기아대책에 전달했다. 임직원 및 가족이 줄넘기 100회당 1만원을 적립하는 방식으로 지난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간 10만회를 목표로 진행했다. 이석기 교보증권 대표이사(왼쪽)가 정규상 기아대책 본부장에게 후원금 1000만원을 전달하고 있다. /교보증권



'개원 1주년' 일산 차병원, 병원의 비대면 선도

차의과학대학교 일산 차병원은 지난 11일 개원 1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일산차병원은 개원 직후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병원계 최초 온라인 개원식과 랜선 산모대학, 비대면 새해 첫 아기 출생 등 병원의 비대면 문화를 개척했다. /일산 차병원



CU, '실종·학대 예방 캠페인' 몽골까지 확장

CU가 실종·학대 예방 캠페인 '아이CU'를 몽골에서도 추진한다. 몽골에서 CU를 운영하고 있는 파트너사 센트럴 익스프레스는 지난달 울란바토르 경찰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몽골 CU를 실종아동의 임시보호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아이CU' 캠페인을 시작했다. /CU



김 보 락 변호사의 노동법을 읽기

분쟁이 되는 많은 징계 사건에서, 근로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처분의 근거가 된 징계사유인지, 그리고 그 비위행위가 취업규칙 등 징계사유를 정한 규정에서 정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다. 징계처분 통보서에 징계사유와 근거 규정이 기재돼 있기는 하나, 여러 비위행위가 문제되거나 하나의 비위행위가 규정상 여러 징계사유에 중복적으로 해당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최근 대법원에서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하여 의미 있는 판시를 해 소개하려고 한다(대법원 2020다270770 판결).

이 사건에서는 징계사유로, A 방송사의 카메라기자가 동료 카메라 기자들을 4등급 분류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그 블랙리스트를 반영한 인사이동안을 작성, 보고하고 다른 직원들에게 전달한 행위 등이 문제됐다. 특히 원심과 대법원의 판단이 엇갈린 부분은 "특정 인물들에 대한 명예훼손 내지 모욕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될 것인지 여부였다.

원심에서는 위 행위는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한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징계사유의 해석

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볼 때 위 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근로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돼 있느냐 여부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해 징계위원회 등에서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지 여부에 의해 결정돼야 하고, 그 비위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를 정한 규정의 객관적인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해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문제되는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함을 특정해 표현하기 위해 징계권자가 징계처분 통보서에 어떤 용어를 쓴 경우, 그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징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의 의미와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단지 그 비위행위가 위 통보서에 쓰인 용어의 개념에 포함되는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다.

즉 카메라기자의 위 행위가 명예훼손, 모욕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인지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징계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의 의미와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지도, '상호인격을 존중해 직장의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고 정한 A방송사의 사규(社規)를 위반한 행위로서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법무법인 바른

LG전자, 올해도 스페인에 나무 400만 그루 심는다

'스마트 그린 프로젝트' 일환 스페인 환경 보호활동 확대

LG전자가 스페인에 나무 400만 그루를 심으며 환경 보호 활동을 확대한다.

LG전자는 스마트 그린 프로젝트 일환으로 올해에도 스페인에 나무 심기 활동을 이어간다고 13일 밝혔다.

스마트 그린 프로젝트는 2018년부터 시작한 활동으로, 장기적으로 스페인 국민 1명당 1그루, 연간 4700만 그루 식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열린 2021 P4G 서울 정상회의에서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가 소개하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250만그루를 심었



스마트 그린 프로젝트 참가자들 모습.

/LG전자

며, 올해에는 2배 수준으로 확대했다. 스페인 공공기관과 CO2 레볼루션, 까르푸 등 10여개 기업과 함께 하고 있다.

앞서 LG전자 이베리아법인은 2019년 스마트 그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법인 인근에 스마트 그린 흡수림과 스마트 그린 가든을 구축했다.

스마트 그린 흡에 있는 태양광 모

듈, 친환경 보일러, 가정용 에너지저장장치 등은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리고 탄소배출을 줄인다. 스마트 그린 가든에 있는 나무 1000 그루는 매년 200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

LG전자는 '고객의 건강한 삶', '더 나은 사회 구현', '제품의 환경영향 저감' 등을 ESG 경영의 지향점으로 두고 환경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LG전자 유럽지역대표 이천국 전무는 "스페인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스마트 그린 프로젝트를 시작했다"며 "스페인의 환경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홍 기자 juk@metroseoul.co.kr

현대차그룹 사회공헌활동 영상, 美 '퀘스타 어워즈' 동상

'보다 혁신적인 사회공헌을 위해' 국내 기업 중 유일하게 수상

현대자동차그룹의 사회공헌활동 영상이 '퀘스타 어워즈 2021'의 '지속가능성·기업의 사회적 책임' 부문에서 동상을 수상했다.

13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이번에 퀘스타 어워즈를 수상한 영상은 '보다 혁신적인 사회공헌을 위해'라는 제목의 사회공헌활동 영상이었

다. 국내 기업 중 유일하게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한다.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전통과 권위를 자랑하는 미국 머콕사 주관의 '퀘스타 어워즈'는 글로벌 기업들의 홍보영상 중 최고의 작품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매년 약 200개 글로벌 기업에서 홍보영상을 출품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올해 '지속가능성·기업의 사회적 책임' 부문에서 금상과 은상이 없는 동상

을 수상하며 독창성과 메시지 전달 능력, 디자인 등을 인정받았다.

수상 영상에는 국제연합(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 구현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현대차그룹의 다양한 사회공헌 노력이 담겨 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사회공헌 활동 커뮤니케이션 제작을 통해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그룹의 노력을 알리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퀘스타 어워즈 2021'



현대차그룹 사회공헌활동 영상 '퀘스타 어워즈 2021' 수상.

수상은 지난해 현대차그룹이 처음 제작한 사회공헌활동 영상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한 데 이어 두번째 쾌거다.

/양성운 기자 ysw@

코오롱스포츠 청소년 스포츠클라이밍 대회 후원

코오롱스포츠가 6월 12일과 13일 양일간 전북 군산시 스포츠클라이밍 경기장에서 진행되는 '제12회 고미영컵 전국 청소년 스포츠클라이밍대회'를 후원한다.

코오롱스포츠는 이번 대회의 메인

후원사로, 대회 진행 비용 일부분 아니라 입상자의 장학금을 지원한다. 또한 선수복 등 진행 물품 일체를 제공하는데 코오롱스포츠의 상록수를 형상화한 한글 '솟'을 디자인 포인트로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원은미기자

인사

◆뉴시스 > 승진 △사진영상부장 박영태(부장대우) △국제부 권성근(차장) > 전보 △산업부장 박상권(부장) △산업2부장 김경원(부장대우) △워싱턴 특파원 김남영 기자(내정) > 입사 > 정처부장 남상훈(부장)

부음

▲안진이씨 별세, 백중문(전 MBC 부사장)씨 부인상, 백수정(효성 커뮤니케이션 실대리)·백동하(현대모터에버 사원)씨 모친상, 김상민씨 장모상 = 12일 오후 10시, 일산병원 장례식장 지하2층 5호실, 발인 14일 오후 1시30분. 031-900-0444